

# 2014 최악의 살인기업 현대제철·대우건설 선정

8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4.07.09 13:51

“이윤보다 생명이다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특별상



▲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이 1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14 살인기업 선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이윤보다 생명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원천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2014 살인기업 선정식이 7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 하는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캠페인단이 마련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가 7월 24일이면 100일째가 되는데 안타깝게 희생된 이들과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11명의 실종자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져야 하고 돈보다 생명이 중시되고 이윤보다 안전이 강조돼야 한다는 사회적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한 해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1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정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이라며 기념식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노동자는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쓰러져 죽어간다”면서 “노동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동자 스스로 나서서 사회에 환기하며 개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이 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을 발표하고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매일 5명 이상 죽고 250명 이상 재해를 당하는 산재공화국”이라면서 “이는 정부의 무능과 천민자본의 합작품인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고 말하고 “우리는 하청 산재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사업주의 책임이다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85만개 기업을 300여 명의 감독자가 관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고, 고위험군 노동을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기업살인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을 발표하고 증서를 수여했다.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이 두 기업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13년 한 해 동안 각각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최악의 특별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차지했다.



▲ 회견 참가자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드라마 '밀회'의 특급칭찬을 패러디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산재사망대책마련을위한공동맹페인단은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노동자들의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작업복 등에 장미꽃을 헌화했다. © 변백선 기자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에서 지난 한 해만 각각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위인 대림산업에서는 9명이, 노량진 수몰사고를 시공한 천호건설·중흥건설·신한건설이 3위를 차지했다. 롯데건설에서는 6명이 사망해 5위에 올랐고, 현대건설·서희건설·포스코건설·한신공영·SK건설은 5명씩 사망해 공동 6위가 됐다. 선정에 이용한 자료는 '2013년 중대재해 발생현황 보고 자료'다.

특별상을 수상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정부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이면에 정부의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큰 몫을 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완화 흐름의 주체가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 직속 규제완화위원회다.

캠페인단은 다발하는 산재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주체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선정하고, 향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월권을 자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킨다.

회견 참가자들은 드라마 '밀회'의 특급칭찬을 패러디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재벌기업과 경총, 전경련, 무능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현대제철, 대우건설, 대림건설, 롯데건설 등이 특급칭찬을 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또 기자회견 장소에 가져다놓은 노동자들의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작업복 등에 장미꽃을 놓으며 지난 시기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매일노동뉴스 박성국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에 엄중히 요구하고 있으며 생명보다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바뀌어야 하며, 더 이상 기업 이윤만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을 외주화하는 한국의 원청 대기업에게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강제하고, 저가 낙찰, 속도 경쟁, 실적 위주의 관리와 운영을 일삼는 한국의 대기업에게 노동자 안전에 대한 비용도 경영 비용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해야 하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다짐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더 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안전모와 안전화, 장갑, 작업복 등이 놓여져 있다. © 변백선 기자